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951

JCCT 2023-9-114

## 일본의 민간협력형 도서관재난관리 사례연구

### A Case Study on the Disaster Management of the Private Sector in Japan

윤유라\*, 이은주\*\*

Youn You-Ra\*, Lee Eun-Ju\*\*

**요약**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재난관리가 중요해지는 현 상황에서 국내 도서관은 독자적인 재난관리계획이나 지원체계 등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지 정확하게 다양한 재난에 노출되어 있어 관련 사례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동일본대지진 이후 구축된 민간 협력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도서관협회의 도서관재해대책위원회와 자발적으로 결집된 전문가 네트워크인 saveMALK을 중심으로 2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도서관협회에서 조직한 도서관재해대책위원회는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saveMALK는 관련 전문가들이 집단지성을 형성하여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일본 사례분석을 통해 협력형 재난관리 체계 구축에 긍정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주요어** : 도서관 재난관리, 도서관 재난계획, 일본 도서관재해대책위원회, 일본도서관협회, saveMALK

**Abstract**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systematic and active disaster management is becoming more important, domestic libraries do not have their own disaster management plans or support systems.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this study looked at overseas cases. Among them, we looked at Japan, where related cases and research are actively underway due to its exposure to various geopolitical disasters. In particular, we focused on cases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established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ssociation's Library Disaster Response Committee and saveMALK, a voluntary network of experts. The Library Disaster Response Committee played a central role in organizing donations and volunteer activities, and saveMALK played a role in collecting and sharing information by forming a collective intelligence among relevant experts. This analysis of the Japanese case has positive implications for building collaborative disaster management system.

**Key words** : Disaster Management-Library, Disaster Planning-Library, Japan Library Association, saveMALK

#### 1. 서론

근자에 들어 한국 정부가 대규모 사건·사고에 부적절하게 대응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학술연구와 뉴스 기사가 종종 발표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 강조되고 있다[1][2]. 특히, 재난 발생 전 조직적인 준비가 대형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재난대응과 더불어 재난대비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재난대비와 재난대응을 아우르는 개념인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된

\*정회원,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제1저자)  
\*\*정회원,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8월 22일, 수정완료일: 2023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5일

Received: August 22, 2023 / Revised: August 31, 2023

Accepted: Sept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ejulee@deu.ac.k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ong-eui University, Korea

다[3]. 이러한 재난관리의 중요성은 우리 사회의 모든 공공기관 및 제반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도서관 역시 예외일 수 없다. 폴 에덴과 그레이엄 매튜스는 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건물, 장서(또는 그 안에 있는 물품), 장비 및 시스템을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모든 사건”으로 정의하며[4], 인류의 지적 역사를 지키고 후대에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도서관에서 재난대비와 관련하여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커뮤니티의 역사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도서관은 그 어떤 기관보다 세심하고 정교한 재난 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국내에서는 2022년 안산에 위치한 공공도서관, 2021년 충북 청주의 작은도서관, 2018년 동해시 공공도서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시휴관 한 바 있어 화재와 관련한 재난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국외는 보다 다양한 재난상황이 많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오비에즈(Oviatt)도서관에서는 지진으로 인해 도서관 부속건물이 붕괴되고, 스탠포드대학도서관에서는 지진으로 소장장서가 70% 훼손되었으며, 로스앤젤레스 중앙도서관에서는 화재로 인해 40만 권이 완전 소실되었고, 화재 진압 중 연기와 물로 70만 권이 훼손되는 등 다양한 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러한 맥락은 2019년에 수행된 미국의 한 조사 결과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도서관을 위협하는 소장자료의 훼손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이용자 및 사서의 잘못된 취급(44%)이며, 종이의 산성화, 가축의 화학적 연소, 해충의 침입 등 자연적인 열화(劣化)가 가장 많기는 하였지만, 이 외에도 자연재난이 10%, 화재가 2%의 비율을 차지해 도서관에서도 재난에 대한 대비가 요구됨을 주장한 적이 있다[5].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도서관만의 독자적인 재난관리계획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에 기대어 재난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많은 연구에서는 재난의 불확실성과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이고 지속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주장하며,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6][7].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보다 재난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본 도서관계의 대처는 주목할 만하다. 일본 도서관계에서는 일본도서관협회라는 전문가 단체를 중심으로 “도서관재해대책위원회”라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기록관, 공민관을 중심으로 한 saveMLAK 네트워크형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중앙정부가 아닌 민간협력형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도서관의 재난대비와 관련한 상시 담당부서나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국내 도서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본 도서관계의 재난관리 체계, 특히, 도서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상된 시스템을 복구하는데 드는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력적 활동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도서관계 재난대비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재난과 재난관리의 개념

재난(Disaster)의 어원적 의미는 악마의 별, 나쁜 별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시민들의 생활에 큰 지장을 가져오는 자연적 현상이나 사건을 지칭한다. 이 개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한 경우에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난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재난의 원인을 기준으로 삼아 <표 1>과 같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물론 재난의 원인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가 포함된다. 그리고 사회재난은 인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분리하여 유형화 하였지만 최근에는 그 구분이 모호해져서 사회재난으로 통합하여 유형화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재난의 유형을 도서관에 적용해보면 도서관은 지진, 산사태, 홍수, 태풍, 화산과 같은 자연재난과 더불어 화재, 환경오염으로 인한 대기오염, 도난, 기물파손, 훼손, 전쟁, 방치 등과 같은 사회재난 등에 모두 노출되어 있다.

표 1. 재난의 유형  
 Table 1. Type of Disaster

유형		종류
자연재난	지형학적 재난	지진이나 화산, 쓰나미 등
	기상학적 재난	태풍이나 홍수, 호우, 폭풍,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등
	생물학적 재난	세균질병이나 유독성 식물 및 유독성 동물로 인한 재난
사회재난	인적 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 오염 사고·환경오염 사고 등
	사회적 재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인프라의 마비나 전염병 등

재난에 선제적 혹은 후속적으로 대응하는 개념인 재난관리는 “인간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건의 위험 등을 인지하고 통제시키며, 재난 발생 후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래의 상태로 복구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는 광의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일부 관점에 따르면 “재난 발생 후 각 기관의 자원관리와 조직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자원관리, 체계적인 현장의 지휘구조를 구성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과정”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도 존재한다[8].

재난관리의 범주는 차치하고서라도 재난관리의 사회적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재난분야의 위기관리를 위한 재난관리 체계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행정안전부 하위에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있으며, 각 지역의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도서관을 위한 독자적인 재난관리 전담부서나 공식적 협력체계, 심지어 민간주도형 활동도 없으며, 상위기관의 재난관리 지침에 따라 혹은 소속기관의 지휘체계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식적으로 발행된 재난관리 계획서나 대응매뉴얼 또한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5년 도서관연구소의 지원으로 발행된 『공공도서관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는데, 해당 보고서에서는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방법과 조직체계의 구축, 위기(자연재난, 안전사고, 이용자 안전(사회재난), 정보보안)별 안전관리, 정보자원의 복구,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논의의 시작단계에 있어 향후 심도깊은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9].

## 2. 선행연구 분석

캔턴은 1950년대 초부터 재난관리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시작되었으며, 미국에서 전후 시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예측하기 위한 목적에서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10]. 이 중 재난관리에 있어 민간주도형에 대한 연구도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8년 논의된 바에 따르면 민간에서 협력형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11]. 반면 국내에서 재난관리와 관련한 논의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는데, 재난관리의 하위 측면인 예방-대비-대응-복구 순의 단계별 구분에 따라 세분화되어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주로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측면이 주된 테마였다.

이 중, 도서관의 재난관리에 초점을 맞춘 논의는 이보다 늦은 시기에 진행되었는데, 북미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도서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의 유형을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12]. 이후 국외에서는 유형에 따른 도서관의 재난사례와 교훈, 재난발생시 행동계획 등 다양한 테마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반면, 국내에서는 도서관의 재난관리와 관련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논의의 시작도 매우 늦은 편이다. 국내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재난대비가 얼마나 미흡한가를 살펴보고, 재난대책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포옥의 연구가 2009년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이후 도서관의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 개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 도출 관련 연구가 일부 존재할 뿐 양적으로 매우 논의가 적어 관련 연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13][14].

## III. 일본 도서관의 재난관리사례

### 1. 일본 도서관계의 재난관리의 필요성 인식

일본은 환태평양조산대에 속하여 3.0 이내의 작은 지진에서부터 7.0 이상의 대형지진에 이르기까지 잦은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북태평양에 남북으로 긴 열도의 형태로 위치하고 있어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태풍의 선로가 되기도 한다. 즉, 일본은 지경학적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이 중,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근대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각종 생활 시설이 파괴되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자연재해였다.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천문학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자연재해에 파괴력을 실감하게 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다시금 인식시켜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일본대지진은 도서관계의 재난관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전까지 일본국립국회도서관과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매뉴얼 보급 등, 관(官)의 일방적인 지원에 의존해왔다면, 대재난 이후 민관(民官)이 함께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실제적인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중심에 일본도서관협회의 도서관재해대책위원회와 자발적으로 결집된 전문가 네트워크인 saveMALK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민간 기구가 어떠한 활동을 통해 재난상황을 대비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일본도서관협회의 도서관재해대책위원

일본도서관협회(이하 일도협)는 도서관사서, 교원 등의 전문가 뿐 아니라, 도서관을 지지하는 일반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익사단법인으로 도서관의 성장·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일본도서관계 대표단체이다.

표 2. 일본 3개현의 도서관 피해 상황  
Table 2.. Library Damage in Three Cities in Japan

	이와테현 (58관)	미야기현 (39관)	후쿠시마현 (64관)	계(161 관)
인적피해	2	2	0	4
건물/시설 의 피해	27	31	36	94
자료등의 피해	52	38	54	144
임시휴관	57	39	44	140

일도협이 재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역시 동일본대지진이었다. 당시 <표 2>처럼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등의 도서관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뿐 아니라 건물이 무너지고 도서관자료가 파손되는 등의 시설의 피해 또한 막대한 상황이었다[15].

피해지역 대부분의 도서관이 임시휴관을 결정하고 재건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다. 이에 일도협에서는 2011년 3월 지진 발생 직후, 동일본대지진으로 피해

를 입은 도서관을 재건하기 위해 동일본대지진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인력지원과 기부금 마련을 시작하였다. 이후 지진뿐 아니라 태풍, 홍수, 화재 등의 재해에 지속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상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5년 12월부터 도서관협회 산하 도서관재해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보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16].

일도협의 도서관재해대책위원회의 규정을 통해 그 역할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도서관의 재난관리의식을 높이고 피해도서관의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7가지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재해 상황에 대한 조사와 정보수집, 둘째, 관계기관 등과의 지원대책을 협의하고 연락하는 등의 조정작업, 셋째, 대비 및 재해 지원에 관한 정보수집, 넷째, 지원을 위한 기부활동, 다섯째, 피해지역 도서관 및 재난민을 수용하게 되는 도서관에 대한 지원활동, 여섯째, 지원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모집, 일곱째 기타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특히, 협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문기사와 논문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회원들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은 공개적인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도서관의 재건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재난 지원기금에 대해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아이치현, 후쿠오카현, 구마모토현의 5현, 12기관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으며, 관종별로 구분하면, 공공도서관 7건, 학교도서관 3건, 대학도서관 2건, 재해별로는 동일본 대지진 5건, 그 외(동일본 태풍 등) 7건이었다. 심사 결과, 2020년도의 지원은 10개 기관으로 결정하여 재해에 따른 시설의 복구와 재건을 도왔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단일 도서관의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도서관의 재난상황과 재건을 위한 지원방법 등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전문가 연수프로그램을 운영로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다양한 재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매뉴얼로 정리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하는 등의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 3. saveMLAK의 정보공유활동

saveMLAK는 일도협의 재해대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결성된 네트워크형 프로젝

트의 일종이다[17]. 2011년 4월에 결성된 saveMLAK는 Mediawiki라는 공동정보편집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박물관과 미술관(Museum),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공민관(Kominkan)의 피해 정보와 재해극복을 위한 정보를 수집·분류·공유·보존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saveMLAK의 운영자이자 중심활동가에 따르면, 추구하는 목적은 8가지로 정리된다[18].

첫째, 동일본대진진이 일어나기 이전의 일상의 회복, 둘째, 피해지역 문화수준 회복, 셋째, 피해지역 문화적 차원의 격차 개선을 통한 대등성 회복, 넷째, 전문가가 그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Pro bono)의 가치의 전파, 다섯째, 정보·중간·간접 지원의 가치 정착, 여섯째, Mlak에 대한 지원활동, 일곱째, 현실적인 Mlak 제휴의 실현, 여덟째, 다음 재해에 대비하는 구조 만들기이다.

이처럼 saveMLAK는 재해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활동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보를 수집하여 공유하고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aveMLAK의 정보공유의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난상황에 있는 도서관의 지도상의 연락처 주소, 위치 및 주변 시설건물을 공유하고, 사서, 도서관 이용자 등의 인적 피해상황과 건물 및 장서 등의 물적 피해상황을 정리하고 현재 재난복구를 위한 자체 혹은 다른 지역사회의 노력에 대해 안내한다. 또한, 재난복구에 유용한 장비, 생명 보험 회사의 연락방법, 과거 재해 복구에 대한 기록의 목록제공 등 복구에 유용한 일반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모든 정보는 원출처가 링크로 제시되어 있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그림 1]은 동일본대진진의 피해 도서관 중 하나인 리쿠젠타카다 시립 도서관 페이지의 내용을 캡처한 것이다. 리쿠젠타카다 도서관의 피해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하고 도서관의 이용 여부와 재건 현황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과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의 피해상황을 지도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정보는 한 사람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saveMLAK활동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 다수가 편집하여 완성되었으며, 참여 전문가의 정보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saveMLAK의 정보공유의 예시  
 Figure 1. sample sharing information in saveMLAK

현재, saveMLAK에서는 자연재해뿐 아니라 코로나 상황을 재해로 선언하고 각 기관의 위기대처 상황과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 보존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재난에 대한 유연한 힘을 기를 수 있는 공공서비스 기관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특히, saveMLAK는 재난상황을 극복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 상황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기고 정리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 뿐 아니라 박물관과 미술과, 공민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의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재난 속에서 자신이 속한 기관을 구조하려는 하나의 목표 아래 함께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고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IV. 결 론

지금까지 일본의 민간주도의 도서관재난관리 주요 사례 2가지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주로 오프라인을 통해 활동하는 일도협이 도서관재해대책위원회는 도서관에 애정을 가진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난 상황의 노하우를 정리하여

세미나와 출판 등의 형태로 지속적이고 공식적인 공유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장점이라 하겠다. 온라인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saveMLAK의 경우, 재난상황에서 정보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었다. 특히, 소수의 운영자가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는 전문가들이 집단지성을 형성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재난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예방과 대비, 대응과 복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인들은 재난에 대한 의식이 낮고 재난관리의 주체가 국가에 있다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상당수임을 알 수 있었다[18].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협력형 재난관리 사례를 통해, 민간이 재난관리에 대한 하나의 주체가 되어 어떠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 References

- [1] S.J. Han, "Understanding the Korean Government Responses to Social Disasters in Post-Disaster,"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Vol. 24, No. 1, pp. 227-308, 2018. DOI:http://doi.org/10.19067/jgs.2018.24.1.277
- [2] Y.R. Kim and J.H. Kim, "Research on disaster management personnel improvement measure of local govern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11, No. 2, pp. 1-9, 2023. DOI:https://doi.org/10.17703/IJACT.2023.112.1
- [3]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 [4] P. Eden and G. Matthews. "Disaster Management in Libraries," *Library Management*. Vol. 17, No.3, pp. 5-12. 1996. DOI:http://doi.org/10.1108/01435129610112743
- [5] How Libraries Can Prepare for Natural Disasters and Preserve Community History. <https://onlinegrad.syracuse.edu/blog/emergency-preparedness/>
- [6] S.H. Park, W.J. Rho, and D.S. Ahn. "An Analysis on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etwork Governance," *Journal of Administrative Research*, Vol. 42, No. 1, pp. 103-132, 2004.
- [7] G.G. Yang. "Strategies of Building Disaster Resistant Communiti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9, No.5, pp.249-256. 2009. DOI:http://doi.org/10.5392/JKCA.2009.9.5.249
- [8] P.O. Kim. "*Disaster Management and Security in the Library*," Seoul: KLA, 2009.
- [9] Library Research Institute. Development of a Safety Management Manual for Public Libraries. 2015. [https://www.dlibrary.go.kr/content/viewDetail.do?master\\_bib\\_no=18460071](https://www.dlibrary.go.kr/content/viewDetail.do?master_bib_no=18460071)
- [10] L.G. Canton. "Emergency Management," NJ: Wiley & Sons Inc., 2020.
- [11] WEF & UNISDR. "Building Resilience to Natural Disasters: A Framework for Private Sector Engagement," 2008. <https://www.humanitarianlibrary.org/resource/building-resilience-natural-disasters-framework-private-sector-engagement-1>
- [12] C. England, and K. Evans, "*Disaster Management for Libraries: Planning and Process*," Toronto: CLA, 1988.
- [13] P.O. Kim.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Countermeasure Plan for the Disaster Protection in Public Library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40, No. 4, pp. 85-110, 2006. DOI:http://doi.org/10.4275/KSLIS.2006.40.4.85
- [14] J.S. Lee, T.K. Kim, B.I. Kim, and J.H. Jung. "Development of a Safety Management Manual for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50, No.2. pp. 77-100, 2016. DOI:http://doi.org/10.4275/KSLIS.2016.50.2.077
- [15] Tomohiko. Shiraiishi, "Earthquake countermeasures in libraries" *Kanagawa Prefectural Library Kiiyo*, Vol. 10, pp. 127-141, 2013.
- [16] Japan Library Association Disaster Countermeasures Committee site. <https://www.jla.or.jp/committees> <https://www.jla.or.jp/committees/tabid/600/Default.aspx>
- [17] saveMLAK site. <https://savemlak.jp/wiki/saveMLAK>
- [18] Makoto. Okamoto, "Activity and task of the saveMLAK and aid for library," *Journal of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Vol. 54, No. 12, pp. 808-818, 2012.